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3. 15(수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박찬기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이주영 사무관(02-3497-1788)

- 산업부 장관,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, 제조업투자, 첨단산업분야 협력 확대 강조 -

- 무역협회 · AMCHM 주최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-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3.15(수) 14:00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"**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**"에 참석하였음

< 행사 개요 >

- ㅇ 일시/장소 : '17.3.15(수), 14:00-17:00 /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
- ㅇ 주최 : 무역협회 - AMCHAM 공동주최
- ㅇ 참석자 :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, 김종훈 前 한미 FTA 한국 교섭대표, Wendy Cutler 前 한미 FTA 미국 교섭대표, Jeffrey Jones 前 암참회장 및 양국 기업인 400여명

□ **주 장관**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가 지난 5년간 **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**로써, **교역, 투자 및 일자리** 창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며 **win-win의 성과**를 가져왔다고 강조함

□ 우선, **무역분야**에서,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**세계 교역이 10% 감소**하는 상황에서, 양국간 교역이 15% 확대된 것은 한미 FTA가 Zero-Sum이 아닌, 양국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**"Positive sum"으로 작용**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

Indus

ㅇ 전반적으로 **한국은 상품 무역**에서 흑자를, **미국은 서비스 무역**에서 흑자를 보여왔으며,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한국이 **약 117억불 흑자(2015년)**를 시현하고 있는 바,

ㅇ 최근 한국의 對美 상품무역 **흑자가 감소**되는 추세인 것과 향후 **한국경기 호전** 및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고려시, 양국간 교역이 점차 균형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

□ 투자 측면에서도 양국기업의 투자가 한미 FTA를 기점으로 모두 크게 발전한 바,

ㅇ **한국기업의 對美 투자**는 한미 FTA 이전 수준에 비해 **약 3배** 가까이 증가하며 자동차, 가전, 반도체, 철강 등 **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** 약 **1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**를 창출하였으며,

- 근로자에 지불하는 평균임금도 **약 92,000불**로 아시아 국가들 대미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ㅇ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도 FTA 이전 대비 **약 2배 이상 증가**하여, IT, 바이오 등 한국의**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 제공**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함

* 한국의 대미 투자 : 07-11년 230.9억불 → 12-16년 369.7억불
  미국의 대한 투자 : 07-11년 92.9억불 → 12-16년 201.6억불

□ 주 장관은 앞으로도 상호호혜적 **한미 FTA를 기반**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더 **확대, 발전**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,

ㅇ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로 **① 에너지, ② 제조업 투자, ③ 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**을 꼽았음

ㅇ 특히, 지난 주 월버로스 美 상무장관과의 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"**에너지 산업대화**(Energy Industry Dialogue)" 설치에 합의하였음을 설명하고, 에너지 교역과 인프라 투자 등에 양국 정부가 **제도적, 정책적 지원**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언급

○ **제조업 투자** 분야에서도,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기업의 비즈니스 **경쟁력을 제고**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에 기여할 것인 바,

- 미국 신정부 제조업 부흥정책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기업간 **더 많은 성공적 파트너쉽 스토리**가 쓰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

○ 마지막으로, 주 장관은 4차 산업협력 시대를 준비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고

- **IoT, 인공지능 가전, 3 D 프린팅**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, 공동 R&D 등을 통해 양국기업이 서로에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(☎ 044-203-5650), 이주영 사무관(☎ 02-3497-1788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